

# Robert Chisholm 박사, 사무엘 상하, 세션 0, 소개

© 2024 로버트 Chisholm 및 Ted Hildebrandt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이것은 0회, 사무엘상하  
서론입니다.

사무엘상과 하서를 장별로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책의 방향을 정하고, 약간의 개요를 살펴보고, 책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영어 성경을 펼치면 소위 역사서라고 불리는 책에 사무엘서가 나옵니다. 오경과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룯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그 역사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책들의 배열이 다릅니다. 타나크(Tanakh)라고도 불리는  
히브리어 성경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경이 될 토라와 타나크의  
N은 선지자인 네비임(Nevi'im)을 의미합니다.

Tanakh의 K는 Ketuvim 또는 저작물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구약의 모든 책은 이 세  
부분 중 하나에 배치됩니다. 선지자는 전자와 후기 선지자로 나누어진다.

이전 선지자들은 룯기, 사무엘, 열왕기가 아닌 여호수아, 사사들로 구성됩니다.  
소위 역사서라고 불리는 다른 책들인 룯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케투빔에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책의 배열이 조금 다릅니다. 여호수아가 다스리던  
땅에 입성한 때부터 주전 586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하는 전선지서 부분은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 다루고 있다.  
그곳에서 발전하고 있는 신학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학자들은 때때로 이것을 신명기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나는 그것을 신명기의 역사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이야기된 역사가 신명기의 신학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이 사무엘이 있는 곳입니다. 이전 선지자들, 즉 영어 성경의 역사서들에서요.

사무엘서에 일어난 사건은 언제 일어났는가? 글썄요, 우리는 일식을 언급하는 아시리아 기록을 살펴보면 구약 역사의 고정된 날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일식이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옵션을 선택해야 하지만 학자들은 어떤 일식이 구약성서의 역사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아시리아 기록에서 언급된 주요 일인지 정확히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리아 기록에서 이 모든 작업을 수행한 다음 아시리아 자료를 구약성서에 있는 내용과 연관시킬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 기록에는 이스라엘의 두 왕 아합과 예후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통치를 기원전 970년에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다윗의 통치는 기원전 101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신약성서의 구절을 토대로 우리는 사울의 통치 기간이 40년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사울은 기원전 1050년경에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무엘서에서는 그보다 먼저 시작합니다. 사무엘서의 앞부분에는 아직 왕이 없고 우리는 사사시대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기간이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1050년 이전이고 솔로몬이 970년에 왕이 되기 전인 다윗의 경력이 끝날 무렵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서에서 약 100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하와 사무엘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성경적 설명의 핵심이다. 기억하시겠지만, 사사기는 에필로그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나빴다는 관찰로 끝납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왕만 있으면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지만 아무 왕이나 다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신명기 17장에 묘사된 이상적인 왕, 즉

백성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왕으로서 섬기는 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신명기에 묘사된 이상적인 왕인 왕을 갖게 될 것이라는 희망, 기대로 끝을 맺습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롯기는 이전 선지자들의 책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서 롯기는 다윗의 족보에 대해 이야기하므로 사무엘서에 다윗이 등장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롯이 없기 때문에 사사기부터 사무엘까지 바로 갑니다.

그리고 물론 사무엘서에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심으로써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왕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점점 더 악해졌고 그는 왕으로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다윗을 데려 오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모든 것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 역시 왕으로서 실패하고 그의 이야기는 여러모로 비극으로 끝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그의 큰 죄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탱할 수 있는 취소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가 끝나자 우리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의 왕조에 자신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인간이 매우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물론 열왕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마침내 북쪽 왕국, 즉 왕국이 분열될 때까지 내리막길을 걷는 것을 발견합니다. 북쪽 지파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유다는 고립되게 남겨지고, 결국 북쪽 왕국은 포로로 잡혀가고, 마침내 BC 586년에 유다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세 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페이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리고 사울을 대신한 다윗. 그들의 경력이 겹칩니다.

사무엘상 1-16장에서 사무엘은 매우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9장에 등장합니다. 그는 그 지점에서 공식적으로 소개되는데, 물론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 역사의 핵심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소개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서 정식으로 소개됩니다. 물론 다윗은 사무엘하 24장 끝까지 초점이 됩니다.

다윗은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초점이 됩니다. 다른 두 인물인 사무엘과 사울은 주로 다윗과 관련하여 역할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선지자인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는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그는 말하자면 주님의 권위 아래 왕을 세우는 자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 원하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 사울은 구했다는 뜻이다.

그분은 그들이 요청한 분이고 아마도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전성기에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왕이었던 다윗과 대조되는 인물, 단순한 호일에 불과한 인물이 됩니다. 사무엘서를 살펴보면 사무엘상과 하서의 서술자가 다윗이 사울보다 우월함을 보여주고 싶어한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에 대한 변호, 즉 다윗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처럼 그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비평가들의 공격으로부터 성경을 변호하는 성경적 변증과 같은 변호입니다. 이것은 David에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자격을 입증하고 그가 참으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임을 입증합니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적어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모든 사람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는 다윗이 과연 여호와의 택함을 입은 자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다윗이 어떻게든 사울에 대항하여 쿠데타를 조직했고 사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비난에 대해 다윗을 변호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마다 서술자는 다윗이 사울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우리야에게 이 끔찍한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을 변호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는 밧세바와 간음을 범하고 우리야를 살해합니다.

그것은 다윗을 변호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글썄요, 그것은 그러한 죄가 다윗의 왕권과 그의 왕조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심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삼하 7장). 여호와께서는 이 전에 다윗에게 자신을 맡기셨고 그 언약은 다윗을 지탱하시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매우 가혹하게 징계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하신 것처럼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따라서 다윗이 우리야에게 죄를 지은 뒤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정당한 왕으로 옹호하는 데 들어맞습니다. 책의 구조와 개요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야기하고 싶다면, 아마도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세 명의 주인공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은 사무엘, 9~31장은 사울,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등장한다. 하지만 캐릭터가 겹치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David는 이 책의 주요 초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우리가 거시구조라고 부르는 큰 측면에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왕권을 주제로 전개됩니다. 사무엘서는 왕권에 관한 책이다.

사사는 왕을 고대하고 있었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왕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첫 일곱 장, 사무엘상 1-7장은 왕권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처음 두 왕에게 기름을 부을 사무엘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왕권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8-12장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권은 실패합니다.

사무엘상 13~15장에서 사울은 그의 왕조를 잃고 왕위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왕권은 불명예에 빠지게 됩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위해 버림받았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즉시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권은 불명예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 왕은 거부되었고 다음 왕이 선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중간 시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새 왕 다윗을 선택하시고 보호하심(삼상 16-31장) 그리고 왕권이 부활합니다. 사무엘하 1-10장에서 사울은 전투에서 죽고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왕좌와 다윗의 왕조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왕권이 유지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죄를 벌하시지만 사무엘하 11-20장에서 그를 왕으로 보존하십니다. 사무엘서에는 다윗 통치의 축소판인 에필로그가 있는데, 그것이 사무엘하 21-24장입니다.

이 장은 엄격한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무엘하 20장의 끝에서 이야기가 보류된 것과 같습니다. 그런 다음 이 에필로그가 있고 거기에 가서 연구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다윗 통치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열왕기상 1장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솔로몬을 그의 후계자로 선택하고 다윗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읽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연구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개요입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에서 우리는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하와 사무엘상하를 가르치는 Dr. Bob Chisholm입니다.

사무엘상하를 가르친 Dr. Bob Chisholm입니다. 이것은 0회, 사무엘상하 서론입니다.